

KIA 마운드 새 판... '1위 독주' 속도 낸다

'크로우 단기 대체' 좌완 알드레드 영입...이의리·임기영 복귀 '대체 선발' 황동하 선발 굳히며 마운드 운용 폭 크게 넓어져



KIA 타이거즈가 1위 독주를 위한 마운드 새판을 깔았다. KIA는 29일 팔꿈치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우완 윌 크로우의 대체 선수로 좌완 캠 알드레드(Cam Allread·27)를 영입했다.

경기에 나와 34이닝을 소화하면서 1승 3패 평균자책점 6.88을 기록했다.

평균 140km 중반의 직구를 던지는 캠 알드레드는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을 구사하며 디펜션이 장점으로 꼽힌다. 트리플A 통산 9이닝당 8.4개의 삼진율을 보이는 등 탈삼진 능력도 눈길을 끈다.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팀에 합류하게 되는 캠 알드레드는 "명문 구단인 KIA 타이거즈에서 뛰게 돼 영광이다. KIA 팬들의 응원이 열정적이라고 들었는데 하루 빨리 팬들을 만나고 싶다. 내 기량을 최대한으로 펼치며 팀 우승에 일조하고 싶다"고 계약 소감을 밝혔다.

캠 알드레드로 부상 공백을 채운 KIA는 크로우의 몸 상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KIA는 이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윌 크로우의 재활선수 명단 등재를 신청했다.

올 시즌 KBO는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으로부터 팀을 지키기 위해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했다.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지 않고 임시 외국인 선수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재활 선수 명단에 등록된 선수는 최소 6주 이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크로우의 검진 결과가 30일께 나올 전망이다. 수술 여부에 따라 복귀 또는 작별이 결정될 전망이다.

재활 선수 명단에 등록된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하게 되면 대체 외국인 선수는 다른 외국인 선수와 교체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의리와 크로우가 나란히 부상으로 빠지면서 마운드 고민을 했던 KIA는 대체 외국인 선수로 '선발 싸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부상 복귀도 맞물리면서 KIA의 마운드에 시선이 쏠린다. 이의리와 크로우가 나란히 부상으로 빠지면서 마운드 고민을 했던 KIA는 대체 외국인 선수로 '선발 싸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의리가 이날 NC를 상대로 부상 복귀전을 치렀고, 선발 준비까지 마친 임기영도 나란히 마운드로 돌아왔다. 또 황동하도 '대체 선발'로 시작해 '선발'로 자리를 굳히면서 KIA의 마운드 운용 폭이 넓어지게 됐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새 얼굴인 캠 알드레드와 경험 많은 이의리와 임기영으로 마운드를 강화한 KIA가 승수 쌓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선수 캠 알드레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타이거즈-자이언츠 '추억의 승부'

KIA, 내달 4~6일 '헤리티지 시리즈-호영 대체전'



타이거즈와 자이언츠가 추억의 승부를 펼친다.

KIA 타이거즈가 6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헤리티지 시리즈-호영(湖嶺) 대체전'을 펼친다.

'호영 대체전'은 KBO 원년 구단이자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전통의 라이벌' KIA와 롯데의 교류전으로 올 시즌 처음 막을 올린다.

두 팀은 이번 시리즈 동안 '올드 유니폼' (사 진)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KIA는 2001년 당시 원정 유니폼을 재현한 특별 유니폼을 착용해 올드팬들에게는 향수를 선물하고, 신규팬들에게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1년은 해태의 유산을 물려받은 KIA가 새로 시작한 해로, 이번 올드유니폼을 통해 모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명문 구단으로 재도약한 타이거즈의 헤리티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특별한 시구·시타도 펼쳐진다.

4일에는 7인조 실력과 걸그룹 빌리(Billie)의 멤버 문수아와 하람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시구와 시타를 담당한다. 수현은 애국가를 맡는다. 빌리는 경기 전과 경기 중 클리닝 타임에 특별 공연도 선보일 계획이다.

5·6일에는 KIA&롯데 팬 야구 짝꿍 사연 공모에 당첨된 팬들이 시구·시타자로 나선다.

또 헤리티지 시리즈 3연전 기간 특별 디자인 한 티셔츠가 발권된다. /김여울 기자 wool@



이의리



임기영

광주FC, 1명 빠진 '포항 철문' 못뚫었다

K리그1 15라운드 0-1 패

광주FC가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포항스틸러스에 승리를 내줬다.

광주FC는 지난 2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1 15라운드 경기에서 0-1 패를 당했다.

후반 23분 포항 신광훈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광주가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끝내 골대를 가리지 못했다.

임지성은 중요한 순간에 몇 차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승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임지성이 전반 4분 골대 왼쪽에서 원발로 때린 공이 살짝 골대를 벗어났다.

아쉬워할 시간도 없이 포항의 반격이 이어졌다.

5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동진이 윤민호와 짧은 패스로 공을 주고받은 뒤 원발로 공을 올렸다. 포물선을 그린 공이 바운드가 된 뒤 그대로 광주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21분 다시 임지성에 시선이 쏠렸다.

최경록이 오른쪽에서 문전에 있던 베기를 향해 크로스를 올렸다. 상대 수비 머리 맞고 공이 뒤로 흘렀고, 임지성이 흐른 공을 잡은 뒤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시켰다. 공은 이내 포항 골대 왼쪽을 뚫으면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면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고 임지성은 다시 한번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0-1에서 추격을 이어가던 후반 23분 임지성이 포항 진영으로 공을 몰고 달려가다가 신광훈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다. 앞서 후반 12분 경고 카드를 받았던 신광훈은 경고 누적으로 퇴장됐다.

1명이 빠진 포항을 상대로 광주가 파상공세를 펼



광주FC의 임지성이 지난 2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1 15라운드 경기에서 공을 몰고 달리고 있다. <광주FC 제공>

쳤지만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다.

후반 40분 이은범의 크로스가 문전에 있던 이근희 앞으로 향했지만 헤더가 살짝 골대를 벗어났다.

8분의 후반 추가 시간 허울의 머리 맞은 공이 골

대로 향하지 않았고, 가브리엘의 슈팅은 옆구물을 때리면서 경기는 0-1 패배로 마무리됐다.

아쉬운 패배를 남긴 이정호 감독은 "자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며 "팬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데 안 좋은 방향

으로 자주 가는 것 같다.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플레이, 새로운 전술 등 내가 더 노력해서 선수들이 경기 잘할 수 있고 팬분들은 힘이 나서 응원할 수 있게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짜릿한 역전승' 전남 15라운드 '베스트팀'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한 전남드래곤즈가 15라운드 '베스트팀'이 됐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26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FC안양을 상대로 3-2 승리를 거두고 5경기 무패(4승 1무)를 기록했다.

1위 안양과의 맞대결에서 승점을 독차지한 2위 전남은 승점 3점 차로 간격을 좁혔다.

이날 경기에서 전남은 전반 13분과 36분 각각 안양 채현우와 리영직에게 골을 내주면서 힘든 싸움을 했다.

하지만 선제골을 넣었던 채현우가 후반 8분 위험한 태클을 하다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경기 흐름이 바뀌었다. '수적 우위'를 점한 전남에 김종민이 '해결사'가 됐다.

김종민은 후반 18분 코너킥 상황에서 발디비아가 올려준 공을 헤더로 연결해 1-2을 만들었다. 김종민은 후반 27분에는 원발로 안양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발디비아가 안양의 패배를 알리는 프리킥골을 선보였다.

발디비아는 수비벽 아래로 공을 깔아치면서 그대로 안양 골대를 가르고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멀티골을 장식한 김종민과 결승골의 주인공이 된 발디비아는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